

장흥지원 '배심조정' 첫 성공

국내 사법사상 최초 지역유지 14명 배심원 선정 분쟁 해소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미국식 배심 재판을 현행 국내 민사조정제에 접목한 '배심조정'을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시행해 성공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최형표 민사단독 판사는 지난달 28일 경매에서 여관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낙찰 받은 박모(여·30)씨가 "자신이 낙찰 받은 땅에 있는 여관건물 일부와 정화조를 철거해 달라"며 여관건물과 부지 대부분을 낙찰 받은 C사업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을 배심조정 통해 조정 성공했다.

박씨는 "낙찰 받은 땅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며 철거를 고집했으며, 자신의 땅을 팔더라도 낙찰가(2천만원)의 8배인 1억6천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박씨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하면서 박씨의 땅을 8천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맞서는 등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 판사는 먼저 장흥지원이 지난 5월 자체적으로 만든 '조정위원회 조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학 학장·의사·교사 등 지역 유지로 14명의 조정위원을 '배심원'으로 선정했다.

배심원들은 조정 당일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원·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설명 듣고 양 측 당사자들에게 질문 등을 통해 조정을 시작했다.

이어 배심원들은 최 판사와 양측 대리인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40여 분간의 난상 토론을 거쳐 '피고는 원고에게 8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양도세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정을 확정했다.

사건 당사자들도 그동안 첨예했던 갈등을 풀고 서로 한발씩 양보해 지역 인사들이 내린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화해의 악수를 나눴다.

배심원으로 참석한 강진 성화대 정

▲배심조정=미국식 배심재판의 기법을 활용한 민사조정. 6~12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 배심을 구성해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듣고, 평의를 거쳐 위원 2/3 이상이 찬성하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제도다. 배심이 최종평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 평결을 내린다.

학관 학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배심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 지역민으로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장흥지원은 배심조정 활성화를 위해 일반 주민들 중에서 별도로 배심조정위원을 모집해 1년에 한 번 정도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지역 원로 14명을 배심원으로 선정,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로 미국식 배심재판을 도입한 '배심조정'을 통한 민사조정을 가졌다. (장흥지원 제공)

광주지법 28일부터 2주간 휴정

지법별 자율휴정제 실시

그동안 재판부에 따라 뜰날썬했던 법원 휴가 일정을 통합해 각 지방법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휴정제가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월 넷째 주인 24일부터 2주 또는 3주 동안 재판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법

원장에게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나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 재판, 구속직부심,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일반 민사 재판도 사건 당사자가 원하면 재판부 재량으로 휴정 기간에 재판을 열 수 있다.

대법원 권고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28일부터 2주간 휴정기로 결정하는 등 각 지방법원별로 기간을 정해 휴정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이나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법원이 1~3개월 휴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휴가 일정이 달라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되도록 한꺼번에 휴가를 가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로스쿨 정원 싸움 장흥보면 답 나온다?

법조계가 최근 장흥군을 놓고 이색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판사는 있는데 변호사가 없는 '유관무변촌'(有判無辯村)인 장흥이 때아닌 로스쿨 도입 연기에 따른 변호사와 법학 교수간의 힘겨루기 무대로 떠오른 것.

법학 교수들이 '무변촌 장흥'을 예로 들며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이에 변

정도 꽤야 장흥 같은 곳에 변호사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로스쿨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장흥지원은 관할이 2개 군뿐인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역"이라며 "관할이 소액사건이나 벌금 20만원 이하 형사사건에 국한돼 변호사들이 관여하기에는 너무 수익이 적고

■ 법학교수들

판사 있는데 변호사 없는 곳 3,000명 정도로 늘려야

호사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때 문이다.

법학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최근 자료를 통해 "1심 관할권을 갖는 지원이 있는 지역에도 아직 변호사가 없는 곳이 있다"며 장흥을 전면 부각시키면서 "아직도 변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수들은 로스쿨 정원이 3천명

■ 변호사업계

수익 적은 곳서 누가 하나 정원 늘릴 이유 안된다

사무소 유지조차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도 "장흥은 사건이 매우 적어 변호사 수를 2천~3천명으로 아무리 늘려도 개입하기 힘든 곳"이라며 "또한 지역민들도 법무사 등을 통해 일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학 교수들이 장흥군을 들고 나온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변호사들은 적정 로스쿨 정원을 1천200명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구름 잔뜩 낀 하늘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뒤 점차 벗어나 한 때 비가 온 뒤 개겠다.

7월 7일 (음 6월 12일) ◇전국날씨

광주	비온뒤 맑	19~27
목포	비온뒤 맑	20~25
여수	흐린뒤 맑	19~24
순천	비온뒤 맑	19~25
해남	비온뒤 맑	21~28
영광	비온뒤 맑	19~26
영암	비온뒤 맑	19~26
진안	비온뒤 맑	18~25
무안	비온뒤 맑	19~28
고흥	비온뒤 맑	20~26
보성	비온뒤 맑	20~27
담양	비온뒤 맑	20~27
장흥	비온뒤 맑	20~27
완주	비온뒤 맑	20~27
진주	비온뒤 맑	20~27
통영	비온뒤 맑	20~27
거제	비온뒤 맑	20~2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10:26 썰물 < 04:27
여수 밀물 < 05:33 썰물 < 11:38

▲해돋이 05:24 ▲해질 19:50 ▲달돋음 16:15 ▲달질 01:30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날씨						
최저/최고	21/28	21/26	21/26	22/27	22/29	22/30

전남도, 태풍 '에위니아' 대비 행정력 집중

전남도는 오는 9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대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와 돌출광고판, 노후 가옥 지붕 등 강한 바람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들을 정비하고, 큰 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 하수도 및 배수로의 퇴적물도 제거

로 했다.

이와 함께 해안지역 피해방지를 위해 선박 대피 및 결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제3호 태풍 '에위니아'는 지난 1일 미국 괌에서 발생, 6일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에서 북서진하고 있으며 중심기압 935hpa, 최대풍속 43m/s에 달하는 중형급 태풍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대법원, 경찰 편법 임의동행 제동

수사관행 개선 불가피

경찰이 범죄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관서 등으로 연행해온 관행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로 끌려가 긴급체포를 당한 후 감시소홀을 틈타 달아난 혐의(도주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권을 내세워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기관으로 데려가 조사하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해온 편법적인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불가피해졌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는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임의동행은 사실상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경찰관이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더라도 불법체포로 인해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사형수→사형확정자, 노쇠자→노인수용자

교정 관련용어 새롭게 바뀌었다

"남자 사형수"는 '남성 사형 확정자', '노쇠자'는 '노인 수용자'로 표현해주세요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수십년 간 쓰여던 여러 교정 관련 용어들도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새 법률에선 '교도소 등'으로 표현된 부분을 법률이름 변경의 취지에 맞춰 모두 '교정시설'로 바꿨다.

'남자', '여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성별의 구분이 아닌 존중의 대상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남성', '여성'으로 바꾸며, 개별적인 신체의 쇠약 여부에 따라 구분했던 '노쇠자' 개념을 없애고 일정 연령 이상은 모두 '노인 수용자'로 표현키로 했다.

일제시대 행정법의 잔해인 '계구'는 '보호장비'로 쉽게 고쳤다. '사형수'라는 표현도 수용자를 '~수(囚)'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판단해 '사형 확정자'로 바꿨다. 또 '시체'라는 표현은 수용자 존중 차원에서 '시신'으로 교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맡아줍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일반의약품

- **키랄라 점안액**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키랄라 점안액은 안과 전문의 권고. 키랄라 점안액은 안과 전문의 권고.
- **신도콜 류스안연**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신도콜 류스안연은 안과 전문의 권고. 신도콜 류스안연은 안과 전문의 권고.
- **비어플 점안액**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비어플 점안액은 안과 전문의 권고. 비어플 점안액은 안과 전문의 권고.

고객을 위한 전화: 090-022-2200 (주선: 4월) 행정번호: 02-312-3121

국제약품이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